

‘한옥 브랜드화’ 영암군, 한옥 문화 비엔날레 추진 ‘시동’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전략 연구 심포지엄 개최 전통 주거 문화 도시 브랜드화...일자리·소득 창출 실현

영암군이 한옥 건축 박람회 재개최 추진과 국제 비엔날레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영암군은 7일 “지난 4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도시 브랜드 전략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승희 군수를 비롯해 김덕룡 서울한옥박물관 조직위원장, 장현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 관장, 이용우 중국 통지대학교 교수, 박경철 문화유산산업진흥원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영암군에서 한옥 건축 박람회 재개최 추진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반영해 새로운 컨셉의 한옥 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옥 고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전통 주거문화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등을 통해 헤리티지(유산)와 아트로페어가 결합된 비엔날레 형태로 확장에 나선다.
한옥 건축 박람회는 영암군에서 최초로 개최한 박람회로, 2010년 제1회 ‘전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8회 진행해왔다. 1회부터 6회까지 군에서 박람회를 진행, 군서면 한옥건축박람회장인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했으나 단순 건축박람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도시 브랜딩 전략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이에 영암군은 한옥의 기능적 측면에 국한된 박람회에서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도시 브랜딩 사업으로 연계,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4 한옥 박람회 개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한옥 건축 박람회 최초의 시작으로 비엔날레 전통성을 확보해 한옥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통 주거 문화를 도시 브랜드화 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실현하며, 신한류 열

풍 확산에 따른 국가 간 문화 교류 확대를 포함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영암도기의 강점을 살린 도자 산업 육성 ▲장작가마 제작을 통한 수제기와 및 도자 연구개발 등 한옥 관련 문화 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옥 공간 활성화 사업과 한옥 공공건축 디자인 진흥계획을 반영해, 구립마을을 기반으로 체험·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립공공한옥건축과의 박람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한옥 건축 박람회 추진을 위한 영암군 특성 분석과 함께 콘셉트 개발과 도시 브랜딩도 함께 계획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박람회를 문화 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행사로 확장해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맛의 수도 목포’ 브랜드화 사업 속도

해관 1897서 쿠킹클래스 시즌3...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화 추진

목포시가 재미진 맛을 내세워 ‘맛의 수도 목포’ 브랜드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목포미시 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쿠킹클래스 시즌3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목포의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보고 맛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며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로컬 육아 크리에이터에게 배우는 키즈 쿠킹클래스(2회), 커플이 함께 피크닉 요리를 만드는 커플 클래스(2회), 목포의 디저트 맛집 대표에게 직접 배우는 디저트 클래스(2회), 목포 고유의 식재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5회) 등 총 11회로 운영된다. (사진)

매회 20명을 모집하며, 첫 번째 프로그램은 커플 클래스로 오는 13일 진행된다. 목포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카카오톡)에서 ‘목포는 맛있다’ 계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해관의 야외공간을 활용해 각 클래스별 주제에 맞는 문화공연을 추가해 기존 쿠킹클래스와 차별점을 뒀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목포미시문화갤러리 해관 1897’은 옛 목포 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음식, 문화,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해관1897은 목포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중소규모 미스 행사 중의 하나로 목포시의 최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이곳을 젊은 세대를 겨냥한 미시 콘텐츠를 발굴해 목포만의 차별화

된 맛과 특색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목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2024 남도 주류 페스타가 10월에 열리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 행사 규모로 키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9-10월 한달간 개최될 예정이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이번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커플,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쿠킹클래스를 시작으로 목포의 미시 문화를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맛의 수도 브랜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 명사십리, 관광지 재생 사업 선정

도비 10억 확보...미디어아트 쇼 등 볼거리 제공

완도군은 7일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지 명사십리는 2007년 11월 전남도에서 관광진흥지구로 승인 받았으며,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친환경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사진)’를 5년 연속 획득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 관광 시설보수 및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군대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도비와 군비 등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명사십리 주 출입구 인근에 바

다 조망이 가능한 포토 스팟 설치와 안전 펜스 교체, 제1주차장 앞 관광 안내판 교체, 스마트 태양광 LED 종합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신지 명사십리에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데크로드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해양힐링’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쇼를 진행해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해양치유센터에 ‘자연 속 예술 공간’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지 명사십리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표지판, 점자 안내판, 점자 블록 설치 및 경사로 등도 정비한다. /완도=윤보현기자

해남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

7억 투입...사회적경제기업 인력·사업 개발 등 지원

해남군이 지역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4개 유형이 있다.
해남군 내에는 사회적기업 9개소를 비롯해 마을기업 20개소, 자활기업 6개소, 협동조합 87개소 등 총 12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수가 증가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민선 7-8기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역내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 군은 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4개 사업 1억2천만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12개 사업,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력, 사업 개발 등을 지원한다. /해남=박봉용기자

무안군, 전국체전 대비 물가 관리 강화

특별대책 기간 물가 동향 파악·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무안군은 7일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대비해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물가안정을 위해 공직자, 무안전통시장상인회와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명이 무안전통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부당 상거래 행위 합동점검·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시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윈

산지 표시 확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동참 등을 집중 홍보했다.
군은 5월까지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대비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물가안정 관리에 힘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체전 기간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신안 임자도 2024 섬 톨립 축제’가 오는 14일까지 신안톨립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30여종의 백만송이 톨립과 카네이션 동백 1천 그루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한다. <신안군 제공>

“백만송이 톨립 향연”...신안 14일까지 톨립 축제

신안군은 7일 “임자도 2024 섬 톨립 축제”를 오는 14일까지 신안톨립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 톨립 축제는 지난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한 3년을 제외하면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톨립 축제다.
올해 톨립 축제는 ‘누려라! 느껴라!

즐겨라! 형형색색 톨립으로...’를 문구로 한 슬로건과 사랑의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펠도른 외 30여종 백만송이 톨립, 홍사자 동백이라고 불리는 카네이션 동백 1천 그루가 꽃을 피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한다.
또한 국제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친

환경 해수욕장임을 인증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국내 최장 12km의 대광해변이 축제장 인근에 있어 해변에서 바라보는 수평선, 파도 소리, 톨립이 묘한 조화를 이룬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추억을 만끽할 수 있다. /신안=양홍기 기자

가수 2AM 정진운 ‘강진품애’ 입주

郡, 홍보대사 위촉...호산마을서 강진살이

강진군은 7일 “지난 4일 발라드그룹 2AM의 멤버 정진운이 강진품애(愛) 입주와 함께 강진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군은 강진읍 호산마을에서 강진품애(愛) 2호 입주식을 개최했으며, 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품애(愛) 2호의 주인공인 정진운은 지난 2008년 2AM으로 데뷔해 음악, 연기, 예능, 사진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며, 영화 ‘리버랜드’와 ‘나는 여기에 있다’ 등에서 주연으로 출연했다. 최근에는 ‘신의 약단’ 주인공으로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품애(愛)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또는 7년 단위로 도시민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됐다.
외갓집이 강진읍 호산마을이었던 정진운은 어렸을 적 향수가 있는 어머니의 고향, 강진에 살아보고 싶었으며, 강진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막걸리를 만들어보고 싶어 강진품애(愛)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운(33)씨는 “외할아버지가 호산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해 자연스럽게 강진산 찹쌀에 관심이 많았고 쌀을 활용한 막걸리, 동동주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도시 생활을 벗어나 어렸을 적 추억이 있던 외갓집 동네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진=정영록기자